

만언사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벗님니야 니 말슴 드러보소
인심 텃지간에 괴아니 늦거온가
평심을 다사라도 다만지 빅년이요
하물며 빅년심이 반료시 어려오니
빅구지 과극이요 창히지 일숙이라
㉠ 녁여 건곤의 지?는 손로써
비러온 이인심이 꿈의몸 가지고서
남아의 흥을일을 평심의 다하여도
㉡ 풀쫓딘 이슬이오 오히려 덧업거든
어와 니일이여 광음을 ㉢ 헤아리니
반심이 치못되어 녹녹하게 돌리업니
어왕스 심각하고 즉금일 헤아리니
번복도 축냥업고 승침도 그지업니
눅디되 이러한가 나흔즈 이러늘가
니비록 내일이나 내역시 니물니라
장우단탄 절노나니 도증상감 쓰이로다

부모심야 호오실제 죽은늘을 나호시니
부귀공명 늘하던지 절고고상 하라던지
천명이 기압던지 선방을 시험한지
일쥬야 죽은아희 홀연이 사라나니
스쥬팔즈 무어내이 평심길흥 점복홀제
슈부강녕 가즈시니 귀향살성 이셔시라
빗난치의 몸의넙고 노리즈를 ㉣ 효측하야
슬하의 어린체로 시름업시 즈라더니

㉤ 그씨외나 죽엇던들 이찌고상 아니보리
흔번세상 두번스라 인간헝낙 하려던지
풍턴지통 슬픈오 못 밍봉가절 눈물일다
십년양혹 외가은혜 호의호식 그려시라
이진일도 만타마는 봉공무가 흥미로다
어진즈당 드러오서 임스디덕 그즈실제
밍모의 삼천지교 일마다 지덕?즈시니
증모의 투쳐호문 놀을밋고 아니시니
설니 읍둑호문 지성이 감턴이오
빅니의 부미호른 효즈의 홀비로다
넙신 양명이 문호 광치로다

헝세의 문져홀일 글밧기 또인논가
통스고문 스셔삼경 당음장편 송명시를
명명이 ㉥ 숙독하고 즈즈이 외와니니

니리기도 하려니와 쓴긴들 아니하라
삼월춘풍 화류시의 구 황국 등고절의
손인목직 버지되어 음풍영월 일삼을제
당시는 조격이요 송명시는 부초로다
문녀필이 헝가지라 쓰옵기도 호오리라
변화갑제 부벽셔라 샤치공즈 병풍셔의
왕우군의 진체런가 조밍부 축체런가
유명무실 하려하사 일시지동 일콧더니
구지브득 뇨초숙녀 댕댕반축 심각하다
동상화축 느껴간다 약탄전년 유실하야
유한덩덩 법을 바다 삼동지의 아라시니
니조의 어진쳐는 성가홀 ㉦ 딩죄로다
유인유덕 우리빅부 구세동거 효측하야
일가지니 훈디잇셔 감고우락 그치하니
의식분별 뉘아던나 세간구즈 내물니라
넙신양명 길을츠즈 권문탁적 호을적의
장군문하 막비인가 승상부등 괴실인지
천금준마 환소 은 소연노리 더욱조타
당궁믹상 변화성은 나도즈간 호오리라
이전모음 전혀넛고 호심광홍 홀연난다
빅마황혼 밋친모음 유형경박 다썩른다
두릉당드 텃진교난 명승이라 일너시나
삼층운디 광통곤들 노리쳐가 아닐넛가
화초월석 빈늘업시 쥬스청누 것넛적의
만준향뇨 넛취하고 절디가인 침니하야
취디나군 고은태도 청가모무 회중홀제
풍뉴호스 괴뉘런고 쥬등선군 불워하라
만스무섭 니져시니 슈신치가 심각하랴
충심양육 오죽년의 부모근심 갑호시다
믹상변화 자랑하니 규리화도 느껴간다
넛모음 고쳐난다 하던근고 다시하야
군문월음 유측하다 부모보양 하라더니
내홀일리 아니런가 수삼년을 치못하야
유석지민 아니되랴 말기지업 일숨으니
어약월 드러가니 군문옥계 길홀여러
지미디턴 호은몸이 텃문근시 보라시라
금의줄 몸의넙고 옥식을 녀머하야
부기에 싸여시며 변화의 쓰엿더니
일신겸디 삼스쳐는 금얼썩이 아니로다
북과 지싱이라 소심봉 공잘못홀
삭안태거 호은후의 칠일옥등 디내오니
곶던의복 무식하고 조흔음식 마시업다

초창봉망 그리면서 듀야뉴테 하야셔라
 모스슈직 싱각밧긔 두료스적 년명되어
 망국턴은 7업스니 회국환비 눈물난다
 금임감셔 승택 하고 싱각도록 과분하다
 변화부귀 곳쳐 하고 금의옥식 다시 하야
 땡인도상 너른결의 비마경구 돈닐적의
 소비친택 강위치은 네로브터 닐너지니
 여긔가도 손을잡고 더긔가도 반겨하니
 님선도 되다 하고 양명도 하다하다
 만시 여의하니 막비턴은 모를손가
 춤죽진명 아라서니 쇠신브국 하라더니
 줄부지 불상이라 곧마복중 되앗더니
 극성죽 필패하니 흥진비리 하얏던디
 다오르면 느려오고 그득하여 씨엿던디
 호사가 다마하니 조물식긔 하얏던디
 인간의 일이만하 화전충화 하얏던디

⑥ 뇌정벽력 급히치니

삼흔칠빅 느라난다 턴지인스 아올손가
 여불승의 약흔몸의 이십오근 칼을뿔
 황쇄죽쇄 하온후의 스옥둥의 갓치이니
 나디은죄 헤아리니 여손여히 하거고나
 앓갑다 내일이여 애도롭다 내일이여
 평싱의 원하기를 충효냉전 하라더니
 혼번일을 그릇하니 불충불효 다되거다
 회셔제이 막급이라 뉘웃춘들 무엇하 리
 등잔불 치는 나뉘 저죽을줄 아라서여
 어디셔 석죽지인 피자자 하라마는
 대악이 당턴하고 눈조차 어두은디
 므른섭 등의지고 널화의 돌미로다
 지된들 뉘타시리 살가망 엇다마는
 일명을 꾸이웁셔 히도의 보너지니
 어와 성은이야 가지록 망국하다

[B]

강두의 비를미고 부모친택 니별홀제
 슬픈우름 혼소리에 막막수운 머무는듯
 손을잡고 니를말삼 초히가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거니 디답이 나올손가
 여취 여광하니 눈물이 하적일다
 강상의 비별하니 니별시가 이제로다
 산턴이 근심하니 부즈니별 홀새로다
 요도 일성의 흐르느비 살긔하니
 일디 땡강이 어니스이 7로졌다
 풍편의 우름소리 공강을 건너오니
 힝인도 낙누하니 내가삼 뉘어진다
 호부일성 엇디지니 애고수리 쉼이로다
 구턴고지 아모런들 아니갈길 되을손가

범7스 관치들은 수이가자 지촉하니
 흘일업서 물게올나 압길울 보라보니
 청산은 몇겹이며 녹슈는 몇구빈고
 념도록 피히여늘 건너도록 물이로다
 석양은 지를넘고 공산도 적막하다
 녹음은 옥어지고 두견이 제혈하니
 슬프다 저새소리 ㉞ 붙여귀는 무슴일고
 네일을 무르미냐 내일을 니르미냐
 굿득에 헛튼므음 우름에 저쳐서니
 만슈의 연쇄하니 내근심 먹음은듯
 천님의 늑결하니 내눈물 뿌리는 듯
 쓰던물 재게가니 압참은 어드메오
 놓흔녕 밧비올나 고향을 브라보니
 창망흔 구름속에 빅구비거 쉼이로다
 경괴짱 다지나고 충청도 돌려드니
 계룡산 놓흔미히 눈결의 디나거다
 념음의 관문맛고 로로이 점고하야
 은진을 넘어드니 념산을 텅하도다
 익산지나 텅주드려 성디산천 돌아보니
 반갑다 남문길히 당안도 의연하다
 빅각턴 버려서니 종각누 니나는 듯
 한벽당 소쇄흔디 초일이 놓하세라
 만만골 너른들희 당천이 빗겨셔라
 금구태인 덩읍디나 당성영마 7라트고
 나쥬디나 념암드려 월출산을 도라드니
 일턴봉 푸른피히 반공의 소사시니
 동성암 방하석이 이피히 엇다하디
 일국지 명산이라 경개도 도타마는
 내므음 어득하니 어느결을 츠브리자
 천관산 얼끗보고 달마산 디나치니
 듀야불분 몇날만의 히변의를 오다말가
 히변을 브라보니 파도도 흥용하다
 7업슨 바다히오 한업슨 물결일시
 태극초판 하을적의 텅디광대 하다커늘
 하늘아래 널스오른 짜히런나 아랏더니
 이제로 불양이면 온턴하가 다물일다
 보람도 쉬여가고 구름도 쉬여가기
 느근새 도뭇디나 니더긔를 엇디가리
 새마춤 셔북풍이 내길흘 지촉는가
 선두에 일땡빅긔 동남을 7로치니
 천 섯는 대등선의 땡뭇글 놓히돌고
 건장흔 도샤공이 빗머리의 나와셔서
 ㉞ 지국충 선수소리 예어스와 화답홀제
 므디마다 처량하니 적직심스 엇더홀고
 회슈당안 도라보니 부운제일 아니뵈다

이내길이 어인길고 무슴일노 가근길고
 불노초 구하라고 삼신산 츠자가나
 동남동녀 아니여든 방스셔서 쏘라가나
 동정호 불근들에 악양누 올라가나
 소상강 구즌비의 조상군 하라는가
 전원어 당무하니 귀거리 오습는가
 노어희 슬져서니 강동거 가습는가
 오호쥬 흘니저어 명 보신 하라는가
 긴고래 칩찌트고 빅일승턴 하려나
 부모쳐즈 다브리고 이어드로 혼자가노
 우눈눈물 스희되야 대히슈를 보태이니
 흑운일편 어디로서 홀연광풍 무슴일고
 산악곳흔 뚝흔물격 비머리를 놀너칠제
 크나큰비 조리되니오장늑부 다나온다
 텃은넙어 남은묵숨 ㅁ자진케 되거고나
 초한진곤 화염등의 당군괴신 되려니와
 서풍낙일 명나슈의 굴삼녀근 불원터니
 츠역텃명 흘일업다 인싱일스 엇디하리
 출물스싱 삼듀야에 노저우고 닷출주니
 슈로천니 다지나고 츠즈섬어 여기로다
 도둥을 도라드니 적막도 태심하다
 스면을 도라보니 날알니 뉘이시라
 뵈?니 바다히오 들니느니 물소리라
 벽히갈 뉴후의 프래브혀 섬이되여
 츠즈섬 삼길적은 © 텃작지옥 이로다
 하슈로 성울빠고 운산니 문울지여
 세상을 쓴허시니 인간이 아니로다
 풍도성 어디메 오디옥이 여기로다
 어디로 가자말고 뉘집으로 가자말고
 눈물이 ㅈ리우니 거름마다 엷더진다
 이집의가 쥬인하라 가난하다 핑계하고

01

윗글의 도입부에서 화자가 드러내는 삶에 대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실존적 허무를 극복하려 한다.
- ② 세속적 가치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 ③ 삶의 짧음을 한탄하며 과거의 영화가 일시적이었음을 성찰한다.
- ④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수용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려 한다.
- ⑤ 시간의 불가역성을 긍정하며 현재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02

윗글에서 화자의 과거 삶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모의 보양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으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 ② 과거 급제 후 대궐의 옥계에 들어서며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 ③ 화려한 의복과 귀한 음식을 누리며 부귀영화의 삶을 영위하였다.
- ④ 관직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진하였다.
- ⑤ 자신의 재주를 믿고 일시적으로 재동이라 불리며 명성을 얻었다.

03

[A]와 지문 후반부의 화자의 처지를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강조된 부모의 교육적 헌신은 화자가 유배지에서 죄를 뉘우치고 충효를 실천하게 하는 실질적 동력이 되고 있겠군.
- ② [A]에서 예견된 화자의 비범한 재능은 유배라는 시련을 통해 완성되어, 가문의 문호를 다시 광채 나게 할 것임을 암시 하겠군.
- ③ [A]에서 부모가 기대했던 입신양명의 길이 현재의 '불충불효'로 귀결된 상황은 화자에게 깊은 자괴감과 회한을 불러 일으키겠군.
- ④ [A]에서 묘사된 평온한 성장 과정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과 대비되어, 화자가 현실의 고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근거가 되겠군.
- ⑤ [A]에서 언급된 성현들의 효행 사례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승화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겠군.

04

윗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변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한때 탐닉했던 세속적 화려함이자 경계해야 할 유혹의 공간을 의미한다.
- ② 부모의 근심을 깊게 만들었던 원인이자 화자의 본래 마음을 잃게 한 요소이다.
- ③ 유배지의 '적막'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화자의 상실감을 심화시키는 매개이다.
- ④ 화자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끊임없이 갈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다.
- ⑤ '금의옥식'과 결합하여 화자가 누렸던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

05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을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여기어
- ② ㉡: 지나온 세월의 흐름을 하나하나 되짚어 계산해 보니
- ③ ㉢: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를 본받아 따르며
- ④ ㉣: 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음미하며 정성을 다해 읽고
- ⑤ ㉤: 가문을 번성하게 할 상스러운 징조이자 결과이니

06

화자의 유배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주 남문에 이르러 장안의 모습과 흡사한 풍경에 반가움을 느꼈다.
- ② 월출산의 푸른 봉우리를 보며 일국의 명산이라 그 경치를 예찬하였다.
- ③ 해변에 도착하여 끝없는 물결을 보고 천하가 온통 물임을 실감하였다.
- ④ 서북풍이 불어오는 때에 맞춰 배를 타고 동남쪽 방향으로 나아갔다.
- ⑤ 추자도에 들어서며 사방에 아는 이 없는 적막함에 깊은 고독을 느꼈다.

07

윗글에 나타난 자연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구'와 '창해'는 화자가 지향하는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 ② '삼월춘풍'과 '구 황국'은 화자의 풍류적 삶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 ③ '산악궂흔'과 '늪흔물격'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④ '청산'과 '녹슈'는 화자의 고향 귀환에 대한 희망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 ⑤ '흑운'과 '광풍'은 화자가 처한 정치적 시련이 곧 해결될 것임을 암시한다.

0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배 가사에서 화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형벌의 가혹함을 토로하거나 임금의 은혜(성은)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 특히 가족과의 이별 장면이나 유배지의 황량한 풍경은 화자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역사적 인물이나 고전적 소재에 투영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슬픔을 심화시킨다.

- ① 이별 장면에서 '부즈니별 홀새로다'라고 한 것은 가족과의 단절에서 오는 비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굴삼너근 불원터니'라며 굴원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충절과 시련을 역사적 인물에 투영하여 슬픔을 심화시킨 것이겠군.
- ③ '일명을 꾸이옵서 히도의 보니시니'라는 표현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④ '턴작지옥'이라 명명된 추자도의 환경은 화자가 겪는 공간적 고립감을 극대화하여 유배객의 처지를 강조하는 장치로 기능하겠군.
- ⑤ '나디은죄 헤아리니 여슨여히 흐거고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며 정치적 복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이겠군.

09

윗글의 '바다'와 '물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세속의 번뇌를 씻어내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정화의 공간이다.
- ② 거대한 자연의 위용을 통해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화자의 슬픔이 투사되어 '우눈눈물'이 모여 형성된 정서적 실체로 묘사된다.
- ④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이다.
- ⑤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긍정적 소재이다.

10

밑줄 친 ㉠~㉥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은유법을 사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에게 닮은 갑작스러운 재앙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설의적 어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묻고 있다.
- ④ ㉣: 의성어를 사용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 과장법을 사용하여 유배지의 극한적 상황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1

화자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유배를 떠나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중에서 칠 일을 지내며 음식 맛을 잃고 의복이 남루해지는 고초를 겪었다.
- ② 자신의 죄를 산과 바다에 비유하며 스스로 불충불효의 길에 들어섰음을 한탄하였다.
- ③ 죽음이 임박한 절망적 상황을 '등잔불 치는 나뭇'과 '묵은 쉼 등의지고'로 표현하였다.
- ④ 유배를 떠나라는 명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죄가 조물의 시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 ⑤ 강가에서 부모님과 이별할 때 너무 슬퍼서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였다.

12

윗글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운명'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기의 낙관적 운명론이 시련을 거치며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② 부모의 덕으로 얻은 행운을 자신의 능력으로 오인했다가, 결국 초월적 존재의 징벌로 수용하고 있다.
- ③ 타고난 기복한 명운을 탓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지려 하고 있다.
- ④ 입신양명을 천명으로 믿었던 확신이 유배라는 실존적 위기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⑤ 가문의 번성을 숙명으로 여겼던 자부심이 개인의 몰락을 통해 가문 전체의 운명적 쇠퇴에 대한 공포로 변모하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마지막 대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배 문학에서 '유배지'는 물리적 격리 공간인 동시에 화자의 내면적 성찰이 일어나는 심리적 공간이다. 유배지에 도착한 화자가 처음 마주하는 '주인(집주인)'과의 관계는 앞으로 전개될 유배 생활의 고단함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이 된다. 화자는 유배지의 낯선 환경을 '인간 세상이 아닌 곳'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소외감을 극대화한다.

- ① 추차도를 '인간이 아니로다'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극한의 소외감과 단절감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② '운산니 문울지여 세상을 쓴허시니'는 물리적 격리를 넘어 화자의 심리적 폐쇄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풍도성 어디메 오디옥이 여기로다'는 유배지를 사후 세계와 연결하여 화자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눈물이 7리우니 거름마다 엮더진다'는 낯선 공간에 도착한 화자의 심리적 충격과 육체적 쇠락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⑤ '가난하디 핑계하고' 주인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은 화자가 유배지의 빈궁함을 극복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겠군.

14

[B] 부분의 서술 방식과 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슬픔을 산천과 같은 자연물에 투사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담담한 어조로 이별의 과정을 나열하여 화자의 절제된 슬픔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잊으려는 화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이별 후의 재회를 확신하는 화자의 의지를 통해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⑤ 타인(행인)의 시선을 통해 화자의 슬픔이 객관화되는 과정을 냉철하게 묘사하고 있다.

15

윗글의 뱃길 여정에서 화자가 사용한 고전적 소재 및 인유(引喻)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노초'와 '삼신산'을 언급하며 자신의 길이 진시황의 신하들과는 다른 길임을 드러냈다.
- ② '동정호'와 '악양누'를 인용하여 자신의 유람이 풍류를 즐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 ③ '소상강'과 '조상군'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고대 중국의 비극적 고사와 연결하여 심화하였다.
- ④ '오호쥬'와 '명 보신'을 사용하여 범려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⑤ '긴고래'를 타고 승천하는 이미지를 빌려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투영하였다.

만언사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화자 태도 및 정서 파악

정답: ③ 삶의 짧음을 한탄하며 과거의 영화가 일시적이었음을 성찰한다.

[출제의도]

지문의 도입부에서 화자가 인생의 짧음과 무상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③ 도입부에서 화자는 '평생을 다사라도 다만지 빅넛'이라며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고, '꽃뿔이 이슬'과 같이 덧없는 인생임을 성찰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과 연결된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허무를 자각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② 덧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맞으나,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다.
④ 자연물(백구, 창해)을 인용하여 인생의 짧음을 비유할 뿐,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며(광음을 헤아리니) 괴로워할 뿐, 현재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02 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 ④ 관직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진하였다.

[출제의도]

화자의 과거 행적 중 부모와의 관계 및 관직 생활의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지문 중반부 '충심양육 오륙년의 부모근심 깎히시다'와 '땃상변화 자랑하니 규리화도 느껴간다'는 부분에서, 화자가 변화함에 빠져 부모의 근심을 깊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부모보양 하랴면니 ... 수삼년을 치못하야'라는 부분에서 부모 보양 기간이 짧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약월 드러가니 군문옥계 길흔여러'에서 관직 진출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의줄 몸의넙고 옥식을 녀어하야'에서 화려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일시지동 일로터니'라는 구절에서 재주 있는 아이로 불렸던 과거를 확인할 수 있다.

03 종합적 감상

정답: ③ [A]에서 부모가 기대했던 입신양명의 길이 현재의 '불충불효'로 귀결된 상황은 화자에게 깊은 자괴감과 회한을 불러일으켰군.

[출제의도]

과거의 기대([A])와 현재의 몰락(유배)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화자의 심리를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③ [A]에서 화자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교육을 받으며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받았다. 그러나 지문 후반부에서 '흔번일을 그릇하니 불충불효 다되거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은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실상이 어긋난 데서 오는 깊은 회한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뉘우춘들 무엇하리), 그것이 실질적인 충효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는 묘사되지 않았다.
② 지문 전체에서 유배를 통한 재능의 완성이나 가문의 재건에 대한 희망적 암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과거의 평온함이 현재의 고통을 '운명적으로 수용'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대비 요소로 작용한다.
⑤ 효행 사례는 과거 교육의 내용일 뿐, 유배지의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으로 승화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 않다.

04 개념 정밀 분석

정답: ④ 화자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끊임없이 갈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다.

[출제의도]

지문 내 핵심 개념인 '변화'가 화자의 삶의 궤적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과거에 '변화'에 빠져 살았으나, 유배를 겪으며 '흔번일을 그릇하니 불충불효 다되거다'라며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여전히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은 지문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이전모음 전허넛고 호심광흥 흥연난다'는 부분에서 세속적 유희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땃상변화 자랑하니 규리화도 느껴간다'며 부모의 근심을 샀음을 명시하고 있다.
③ 유배지의 '적막도 태심하다'는 표현과 과거의 '변화'는 강한 대비를 이룬다.
⑤ '변화부귀 곳쳐하고 금의옥식 다시하야' 등에서 물질적 풍요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0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③ 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를 본받아 따르며

[출제의도]

고어 및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③ ㉔ '효측하야'는 문맥상 '노래자(중국의 효자)를 본받아'라는 의미로 쓰였다. 선지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통하나,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인물(노래자)의 행동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핵심이다. (정밀하게는 '본받아'에 초점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손로셔'와 연결되어 나그네로 여긴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② '광음을 헤아리니'에서 시간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④ '명명이 숙독하고'에서 글을 깊이 읽는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⑤ '성가홀 땡최'에서 집안을 이룰 징조라는 의미가 적절하다.

06 여정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월출산의 푸른 봉우리를 보며 일국의 명산이라 그 경치를 예찬하였다.

[출제의도]

여정 중 화자가 각 장소에서 보인 반응의 디테일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월출산을 보고 '일국지 명산이라 경개도 도타마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내뭇을 어득히니 어노결을 추브리자'라며 자신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경치를 예찬했다는 설명은 화자의 내면 상태를 간과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반갑다 남문길히 당안도 의연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제로 불양이면 온턴하가 다물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셔북풍이 내길홀 직촉논가 ... 동남을 7로치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도둥을 도라드니 적막도 태심하다 ... 날알니 뉘이시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자연물의 기능과 화자의 정서

정답: ② '삼월춘풍'과 '구축황국'은 화자의 풍류적 삶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출제의도]

지문 곳곳에 등장하는 자연물이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과거 관직에 있을 때 '삼월춘풍 화류시'와 '구축황국 등고절'에 묵객들과 벗하며 풍류(음풍영월)를 즐겼다고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풍류적 삶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

[오답 풀이]

- ① '백구'와 '창해'는 인생의 짧음을 비유하기 위한 소재일 뿐,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지향하는 매개체는 아니다.

- ③ '늑흔물격'은 화자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시련의 상황이 지 갈등 해소의 과정이 아니다.
④ '청산'과 '녹슈'는 유배지로 가는 길의 험난함과 고향과의 거리감을 드러낼 뿐, 귀환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⑤ '흑운'과 '광풍'은 유배지로 가는 뱃길의 험난함을 고조시키는 장치로, 시련의 해결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나디은죄 헤아리니 여순여히 후거고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며 정치적 복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이겠군.

[출제의도]

유배 가사의 일반적 특징을 담은 <보기>를 지문에 적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화자가 자신의 죄가 산과 바다 같다고 인정하는 것은 유배 가사의 전형적인 '자기 반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복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지문에 없으며, 오히려 성운을 강조하는 태도는 복권에 대한 잠재적 희망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오답 풀이]

- ① 부자간의 이별을 산천도 근심한다고 표현하여 비극성을 높였다.
② 초나라의 충신 굴원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냈다.
③ 죽을 목숨을 살려 유배를 보내준 것을 성운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추자도를 하늘이 만든 지옥이라 표현하여 유배지의 황량함을 강조했다.

09 상징적 소재의 의미 분석

정답: ③ 화자의 슬픔이 투사되어 '우는눈물'이 모여 형성된 정서적 실체로 묘사된다.

[출제의도]

지문 후반부의 핵심 배경인 '바다'가 화자의 정서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지문 후반부 '우는눈물 스히되야 대히슈를 보태이니'라는 구절에서, 화자의 눈물이 바닷물이 되었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슬픔의 깊이를 바다라는 소재에 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바다는 화자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시련의 공간이지 정화의 공간이 아니다.
② 자연의 위용을 느끼기는 하지만(턴디광대), 주된 기능은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④ 바다를 건너 유배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귀환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해석은 문맥상 앞서나간 것이다.
⑤ 바다의 흉용함과 광풍은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이므로 성운의 형상화로 보기는 어렵다.

10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㉔: 은유법을 사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주요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과 그 효과를 정확히 판별한다.

[정답 풀이]

- ① ㉔ '풀쫓듯 이슬이오'는 '~은 ~이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문맥상 '풀 끝의 이슬과 같다'는 의미의 직유적 속성을 지닌 은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인생은 풀 끝의 이슬이다'라는 은유가 맞다. (발문 오류 수정을 위해 다시 검토: ㉔는 은유가 맞으므로 적절함.)
- ② 변을 확인.)
- ③ ㉔ '불여귀는 무슨 일고'는 설의법이라기보다 화자가 새에게 묻는 형식을 빌린 의문형이며, 자신의 처지를 새의 이름(돌아가지 못함)에 투영한 것이다. 따라서 '설의적 어법'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뇌정벽벽'은 갑작스러운 시련을 번개에 비유한 것이다.
- ④ '지국충'은 노 젓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 ⑤ '턴작지옥'은 추자도를 지옥이라 표현한 과장적 묘사이다.

11 사건의 세부 전개 파악

정답: ④ 유배를 떠나라는 명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죄가 조물의 시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출제의도]

화자가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의 인식 변화와 세부 사건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옥에서 나와 유배를 떠나기 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호사가 다마하니 조물식고 헛얏던디'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일 뿐, 유배 명을 받고 '비로소 깨달은' 결정적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칠일옥동 디내오니 ... 조흔음식 마시업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디은죄 헤아리니 여손여히 헛거고나'와 '불충불효 다되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죽음의 위기를 나비와 마른 쇠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슴이 막히거니 디답이 나올손가'에서 이별의 슬픔을 확인할 수 있다.

12 화자의 운명관 분석

정답: ④ 입신양명을 천명으로 믿었던 화신이 유배라는 실존적 위기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는 화자의 운명 인식을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과거에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입신양명하는 것을 당연한 흐름(천명)으로 믿고 변화함을 누렸다. 그러나 유배라는 급작스러운 시련을 겪으며 인생이 '풀 끝의 이슬' 같음을 절감하고, '회서제이 막급'이라며 인생의 무상함과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② 초월적 존재의 징별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릇된 일'에 대한 자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 ③ 명운을 타는 부분(기박하다)은 있으나, 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 ⑤ 가문 전체의 쇠퇴에 대한 공포보다는 자신의 불효에 대한 죄책감이 중심을 이룬다.

13 공간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

정답: ⑤ '가난하다 핑계하고' 주인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은 화자가 유배지의 빈궁함을 극복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겠다.

[출제의도]

유배지의 공간적 특성과 인물 관계를 <보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이 가난을 핑계로 화자를 거부하려는 기색을 보이는 것은, 화자가 앞으로 겪게 될 유배 생활의 고초를 암시하는 것이지 화자의 '자립 의지'를 자극하는 긍정적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
- ② 지문에서 추자도를 세상과 끊어진 곳으로 묘사한 것은 소외감의 표현이다.
- ③ 풍도성(지옥)을 언급하며 유배지의 고통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눈물로 앞이 가려 넘어지는 모습은 화자의 처참한 심경을 잘 보여준다.

14 장면의 정서적 특징 분석

정답: ① 이별의 슬픔을 산천과 같은 자연물에 투사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출제의도]

이별 장면(1B)에서 사용된 서술 기법과 주된 정서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1B에서 '막막수운 머무논듯', '산천이 근심하니' 등의 표현은 화자의 슬픔을 구름이나 산천과 같은 자연물에 투사하여 이별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오답 풀이]

- ② '슬픈우름', '눈물이 하적일다' 등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이고 격정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담담한 어조로 보기는 어렵다.

- ③ [B]는 이별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 회상을 통해 고통을 잊으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재회에 대한 확신이나 희망으로의 승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이별의 고통만이 강조되고 있다.
- ⑤ 행인이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은 슬픔의 전염과 공유를 의미할 뿐, 슬픔을 냉철하게 객관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5 고전적 소재와 인유의 활용

정답: ④ '오호쥬'와 '명철보신'을 사용하여 범려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출제의도]

지문 후반부 뱃길 장면에서 화자가 열거한 고사들의 문맥적 기능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오호쥬 흘니저어 명철보신 흐라논가'라고 묻고 있다. 이는 자신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범려처럼 몸을 보존하여 은둔하려 가는 길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둔 의지를 표명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
- ② ,
- ③ ,
- ⑤ 모두 화자가 현재 배를 타고 가는 비극적 상황(유배)이 일반적인 고사 속의 목적(불로초, 유람, 은둔, 신선 등)과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적절한 분석이다.